

전남 산림자원 산업화 ‘속도’... 민간 손잡고 그린바이오 진출

전남산림연구원-현대바이오랜드, 소재개발·사업화 협약 원료 생산·국산화·단가 안정화... 공급망 갖춰 시장 확대

전남산림연구원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산림자원의 산업화를 본격화하며 지역 기반 그린바이오 시장 확대에 나섰다. 연구 개발부터 원료 생산, 제품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면서 임업과 바이오 산업을 연결하는 구조가 구체화되고 있다.

전남산림연구원은 25일 (주)현대바이오랜드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소재 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산림자원을 실제 시장에서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고, 국산 원료 기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스그린바이오 소재의 시장 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원료 대량 생산 및 국산화 △단가 안정화 △공동 연구 및 마케팅 등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기로 했다. 단순 연구 협력 수준을 넘어 생산과 유통까지 연계한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원료-소재-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축이다. 전남산림연구원이 보유한 산림자원과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현대바이오랜드의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상용화 속도를 끌어 올리는 구조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현대바이오랜드는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천연소재 전문기업으로, 화장품·식품·헬스케어 분야에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원료 공급 역량을 축적해왔다. 매출 1300억 원 규모의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국산 원료 확대와 고부가가치 소재 발굴을 주요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미 공동 연구 기반도 확보한 상태다. 전남산림연구원이 산림청 ‘2026년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공모에서 4개 과제를 따내며 104억원 규모 국비를 확보했

고, 이 중 1개 과제에 현대바이오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향후 5년간 디지털 기반 원료 양산화, 기능성 검증, 표준화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전남산림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산업 현장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성과가 기업 수요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과 고용으로 확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은 “산림자원의 산업화는 임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연구개발과 생산, 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 임업인 소득과 지역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산림연구원은 25일 (주)현대바이오랜드와 산림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농기자재, 아시아 입지 굳혔다

농어촌공사, 중국 농산업 박람회서 189만 달러 협약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본에 이어 중국 농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며 아시아 농기자재 시장에서 케이(K)-농기자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최근 ‘2026 중국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189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박람회 참가기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케이(K)-농기자재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식량안보법’을 개정하며 자국 내 식량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공사는 현지 시장의 두 가지 핵심 수요를 겨냥해, 국내 우수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기업 20개 사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맞춤형 시장 공략으로 케이(K)-농기자재는 현지 바이어의 큰 주목을 받았다.

공사는 박람회 참가 전 중국 농산업 동

향과 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박람회 참가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해 현장에서 수준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람회장에서는 997만 달러(238건) 규모의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88만 달러(12건)의 수출 업무협약과 1만 달러(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사는 “아시아 최대 농업 시장이자 세계적인 농업 강국인 중국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케이(K)-농기자재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품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농산품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www.agroex.or.kr/)’을 통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시장개척단,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할 국내 농기자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광주시·전남도, ‘하나되는 직거래장터’ 연다

27~29일 롯데아울렛 수완점... 청년농부 참여 브랜드쌀 시식행사·행정통합 정책 등 홍보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롯데아울렛 수완점에서 ‘전남·광주 하나되는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흐름에 발맞춰 지역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터는 총 3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광주와 전남지역 청년농부들이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포토존과 홍보부스를 함께 설치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김치, 김부각, 꿀, 전통차, 우리밀 제품 등 농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판매한다. 전남도는 나주·순

천·구례 등 10개 시·군과 농협 전남본부가 참여해 가루쌀과 우리밀을 활용한 빵·떡 등 다양한 디저트류와 청년농부들이 직접 생산한 고구마, 들기름 등 농산물을 선보인다. 아울러 전남 광역 농산물 브랜드인 ‘삼금애’, ‘오매향’ 제품도 함께 판매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특히 행사 첫날인 27일에는 ‘전남 10대 브랜드 쌀’ 홍보와 시식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장터는 지역 농가에는 판로 확대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귀숙 광주시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광주와 전남이 하나 되는 도농 상생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지역의 우수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다움 돌봄, 행정통합 대응 예방·건강관리까지 포괄해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사후 대응 중심의 서비스 연계를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국 선도모델로 평가받는 만큼, 제도 시행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한 단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연구원은 25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6호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속 발전 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법 시행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AI 기반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해 통합돌봄의 실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이 기존의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넘어 건강관리까지 포함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이제는 사후 대응형 서비스를 넘어 건강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예방적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돌봄 책임이 명확해지고, 의료·요양·돌봄·주거 서비스를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보건복지부 로드맵에 따라 통합돌봄이 전주기적 지원체계로 확대되는 만큼, 광주 역시 정책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미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와 실행 경험을 축적해 온 선도 사례로 꼽힌다.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설치, 광역-기초 협력 구조, 등 단위 통합창구와 케어매니저 중심의 원스톱 사례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했다.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04억 원을 투입해 2만5668명에게 4만2129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법 시행과 행정통합 이후에는 기존 성과를 넘어서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담체계 정비와 재정 분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체계 구축, AI 기반 돌봄 혁신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보고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속 발전 방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 강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차원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 기반 돌봄 생태계 조성 △AI 복지환경 대응 및 제도 정비 등을 제시했다. 김지영 광주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선도 경험을 갖춘 모델”이라며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변화에 맞춰 예방 중심 체계 구축과 맞춤형 생태계 조성, AI 기반 현장 대응력 강화,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북광주농협, NH농협손보 ‘위더스상’ 수상

농업인 실의 증대·지역사회 기여 공로 인정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25일 북광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북광주농협에 ‘2026년 위더스-With-Us 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더스상은 손해보험 사업을 통해 농업인 실의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농협과 손해보험 간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은 서운종 NH농협손해보험 부사장과 이철호 광주본부장, 문익주 광주총국장 등이 참석해 구상봉 북광주농협 조합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서운종 부사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인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서 북광주농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농협손해보험과 긴밀히 협력해 농업인과 조합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구상봉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임직원 모두가 조합원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NH농협손해보험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내실 있는 사업 성장을 이루고, 안정적인 농가 경영 지원을 통해 농업인 실의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국은 25일 북광주농협 대회의실에서 북광주농협에 ‘2026년 위더스-With-Us 상’을 전달했다.

농협 전남본부,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

임직원 자발적 참여... 혈액 수급 위기 극복 동참

농협 전남본부는 25일 본부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 NH농협지부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범농협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절기 혈액 보유량 감소로 인한 수급 위기를 해소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연과

협력해 진행했으며, 전남농협 임직원 50여명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최근 혈액 보유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해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박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2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산업통상부의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 계획’을 토대로 광양

만권의 특성에 맞는 중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고회에는 경제청, 전남도, 여수·순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광양시와 하동군 등 광양만권 인접 지자체 공무원과 용역사인 와이비파트너스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제2차 발전계획에는 광양만권의 향후 10년에 대한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 설정,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이 담겼다.

구중근 경제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광양경제청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도약하기 위한 첫 삽을 뜨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내실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광양경제자유구역이 지역 경제의 핵심축으로서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ikjin@